

한글 마을법 통일판

(朝鮮語 級字法, 統一案)

[교 친 편]

五
版

한글 어학회

改版에對하여

“마음법”은 어떠한 말을勿論하고 그 말을 글자로 적는
방법을規定하는것이요, “표준말”은 같은뜻을 가진 여러
말들 가운데에서 하나의를擇아서標準을세우는것이니,
마음법과 표준말은根本적으로 떤性質의것이다.

그런즉, 이 마음법 證定안은 표준말이 証定되기 前에 証定-
된것이므로, 그 用語나 語例들에 있어서는 표준말의 証定-
됨을 따라 ——이 그것을 適用하여야 할것이勿論이다.
그리므로, 지난 十月 二十八日(한글 紀念日)에 조선어
표준말이 發布되자, 이어서 本會에서는十一月 二十八日에
열린 臨時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이 統一案의 用語를 修-
整하기로 되었다.

그래서, 本案 制定當時의 暫定的으로 議定하였던 附錄
標準語 第七 第八 兩項의 표준말 語彙 全部를 이번에 本-
案에서 온전히 削去하고, 本案 各項의 用語와 語例들을 모-
두 証定된 표준말로써 通일되 修補 整理하여, 이 統一案
本來의 精神과 文意를 理解하기에 適切하도록 도모하는 同-
시에, 本案의 實際 應用에 더욱 便宜하도록 침쳤다.
昭和 十二年 三月 一日

미 력 말

本會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制定하여, 이에 一般 社會에 發表한다.

이 統一案이 이루어짐에 隨하여, 그 經過의 概略을 藉=하면: 一九三〇年 十二月 十三日 本會 總會의 決議로, 한글 마춤법의 統一案을 制定하기로 되어, 처음에 委員 十二人(權惠奎 金允經 朴顯植 申明均 張志暎 鄭烈模 鄭寅燮 崔鉉培 李克魯 李秉岐 李熙昇 李允宰)으로써 二個年間 審議를 거듭하여, 一九三二年 十二月에 이르러 마춤법 原案의 作成을 마치었다. 그리고, 또 委員 六人(金善琪 李鉅 李萬珪 李常春 李世植 李鐸)을 增選하여 모두 十八人의 委員으로서 開城여서 會議(一九三二年 十二月 二十五日——一九三三年 一月 四日)를 열어, 그 原案을 逐條 評議하여 第一讀會를 마치고, 이를 다시 修正하기 위하여 修正委員 十人(權惠奎 金善琪 金允經 申明均 張志暎 鄭寅燮 崔鉉培 李克魯 李熙昇 李允宰)에게 맡기었다. 그 후 六個月을 지나어 대체의 修正이 끝났으므로, 또 委員 全體로써 다시 華溪寺에서 會議(一九三三年 七月 二十五日——八月 三日)를 열어, 그 修正案을 다시 檢討하여 第二讀會를 마치고, 또 이를 全體적으로 整理하기 위하여 整理委員 九人(權惠奎 金善琪 金允經 申明均 鄭寅燮 崔鉉培 李克魯 李熙昇 李允宰)에게 맡기어 最終의 整理가 다

마치었으며, 本年十月十九日 本會臨時總會를 거쳐어 이=

를 旅行하기로 決議되니, 이로써 이 한글 미총법 통일안=

이 비로소 完成을 告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統一案이 完成하기까지에 三個年の 時=日을 걸치어, 一百二十五回의 會議가 있었으며, 그 所=要의 時間數로는 실로 四百三十三時間이라는 矢지 이=나한 時間에 마치었으나, 과연 文字整理란 그리 容易한 을이 아님을 알겠다. 本會는 이로ւ 가장 嚴正한 態度와 가장 慎重한 處理로써 끝까지 最善의 努力を 다하여 이=처 이 統一案을 만들어서 우리 民衆의 앞에 내어놓기를 驚躇하지 아니하는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오늘날까지 混亂하게 섞인 우리글을 한번 整理하는 첫 試驗으로 아니니, 여기에는 또한 不備한 點이 아주 없으리라고 스스로 斷定하기 어려울것이다. 더구나 時代의 進步로 여러 가지 學術이 날로 달라감을 따라 이 한글에 있어서도 그 影響이 없지 아니할것이다. 그므로, 本會는 앞으로 더욱 이에 留意를 더하고자 하는것이니, 一般 社會에서도 빠로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끌으로, 이 統一案이 完成함에 이르기까지 精神的乃至 物質的으로 많은 整理과 두려운 貢助를 주신 京鄉 有志人士에게, 특히 孔濯 金性洙 宋鎮禹 其他 諸氏와 各報道機關 및 漢城圖書株式會社에 對하여 깊이 感謝의 意를 表한다.

한글 頒布 第四百八十七回 紀念日

總各論	論述
第一章 字母	字母論
第二章 音	音論
第一節 字母의 數와 그 順序	1
第二節 字母의 이름	1
第二節 舌側音 關한것	2
第二節 韻母리	2
第三節 “ㄹ”받침 소리	3
第三節 口蓋音化	4
第四節 “ㄷ”받침 소리	5
第三章 文法에 關한것	6
第一節 體言과 토	6
第二節 語幹과 語尾	7
第三節 運詞의 被動形과 使役形	9
第四節 變格 用言	11
第五節 반침	13
第六節 語源 表示	16
第七節 品詞 合成	26
第八節 原詞와 接頭辭	29
第四章 漢字語	30
第一節 훌소리만을 變記할것	30
第二節 담소리만을 變記할것	34
第三節 담소리와 훌소리를 함께 變記할것	36
第四節 俗音	36
第五章 略語	39

第六章 外來語 表記.....	42
第七章 띠어 쓰기.....	43

附 錄

一. 標準語.....	45
二. 文章 符號.....	48

한글 마춤법 통일안

總 論

- 한글 마춤법(級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諸法에 맞도록 험으로써 原則를 삼는다.
- 표준말은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자을 말로 한다.
- 文章의 각 單語는 띠어 쓰되, 𩟎는 그 옷 말에 붙여 쓴다.

各 論

第一章 字母

第一節 字母의 數와 그 順序

第一項 한글의 字母의 數는 二十四字로 하고, 그 順序는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ㅓ ㅑ ㅓ ㅓ ㅓ ㅓ

〔附記〕 ト記의 字母로써 朴을수가 없는 소리는 두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ㅏ ㅓ ㅑ ㅓ ㅓ ㅓ ㅓ

第二節 字母의 이름

第二項 字母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定한다.

ㄱ 기역 ㄴ 나은 ㄷ 디귿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카읔 ㅌ 타읗
 ㅍ 피읖 ㅎ 허읗 ㅏ 아 ㅑ 야 ㅓ 어 每日经济 ㅗ 오 ㅕ 요
 ㅜ 우 ㅠ ㅡ 으 ㅣ 이

[附記]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定한다.

ㄱ 쌍기역 ㄷ 쌍디귿 ㅂ 쌍비읍 ㅆ 쌍시옷 ㅈ 쌍지읒

第二章 聲音에 關한 것

第一節 된 소리

第三項 한 獨語 안에 카, 아무 뜻이 없는 두 音節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晉節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칙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어깨(肩)	엇개
기꾸로(鈎)	것구로
깨끗하다(潔)	깻굿하다
부끄럽다(耻)	붓그럽다
새끼(雛)	셋기
토끼(兔)	돛기
아끼다(惜)	앗기다

第二節 舌側음 “ㄹ”

第四項 在來에 한 獨語 안의 아무 뜻이 없는 舌側音 “ㄹ”을 “ㄹㄴ”으로 칙던것을 “ㄹㄹ”로 칙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얼락달락(班)	알낙달낙
별래(洗濯)	별내
개질랑(狗皮膚)	개질낭
털링이(粗忽者)	털렁이
걸러(拭布)	걸비
홀로(獨)	홀노
실룩실룩(蠟動)	실룩실룩

이따금(徃往)	잇다금
어떠하다(如何)	엇더하다
으뜸(元)	웃듬
아빠(父)	암빠
오빠(男兄)	울빠
기쁘다(喜)	깃보다
부식(夷進統)	붓식
해쓱하다(著目)	햇속하다
소작새(杜鵑)	솟작새
여쭈다(稟)	엿주다
어찌(何)	엇지

얼릉(即速)	얼는
빨리(速)	빨나

第三節 口蓋音化

第五項 한글의 字母는 다 케 音質대로 읽음을 原則으로 한다. 따라서, “탸, 래, 도, 둔, 디”를 “자, 차, 조, 주, 지”=로, “탸, 래, 료, 쥐, 리”를 “자, 카, 초, 추, 치”로 읽음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附記一〕 “ㄷ, 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從屬的 關係=를 가진 “이”나 “느”가 읊적에는 그 “ㄷ, ㅌ”이 口蓋音化하는것을 特例로 認定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준이(固)	구지
땀벌이(汗受衣)	땀바지
해돌이(日出)	해도자
같이(同)	가치
발이(田衣)	바지
핥이다(使吸)	핥치다
견ჩ이다(被撓)	거친다
닫히다(被閉)	다친다
묻히다(被埋)	무친다

〔附記二〕 “ㄴ”은 “ㄴ” (ㅑ, ㅓ, ㅗ, ㅜ) 외에서 口蓋音化=하는것을 認定한다. 例:

가덕나(去)	거덕(夕)
바구니(扭器)	숟금(飯鼎水)

第四節 “ㄷ”발 침 소리

第六項 아무 가黠이 없이 “ㄷ”만 침으로 나는 말은, “ㄷ”=으로만 나는것이나 “ㅅ”으로도 나는것이나를勿論하고, 在來의 버릇을 따라, “ㅅ”으로統一하여 읽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接頭辭
(→) “ㄷ”으로만 나는 반침

甲 乙

벗끼고리(加比衣)	털끼고리
핫옷(厚綿衣)	한옷
엇설(相殺會計)	얼설
벗나기다(殺行)	빈나가다
짓밟다(蹂躪)	질밟다
엇먹다(違錯)	얼먹다
엿보다(窺視)	얼보다

(2) 亂形詞

웃(衆)	문
첫(初)	천
첫(虛)	천
옛(昔)	언
옷(.上)	운

(3) 副詞	
그릇(誤)	그를
무릇(凡)	무를
사물(無碍)	사물
얼핏(快速)	얼핏
걸핏하면(動輔)	걸핏하면
자칫하면(少差)	자천하면
(二) “人”으로도 나는 반침	
따뜻하다(暖)	따뜻하다
반듯하다(正)	반듯하다
벙긋벙긋(口笑貌)	벙글벙글
잘못하다(過誤)	잘못하다

第三章 文法에關한 것

第一節 體들과로

第七項 體言과 肖가 어우를 칙에는, 소리가 燥하거나 아=나하거나를 旁論하고, 다 쳐 原形을 밝히어 칙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떡이 떡을 떡여 (餅)	떡기 떡글 떡게
손이 손을 손여 (手)	손나 소를 소비
말이 말을 말여 (昆)	마지 마들 마테
풀이 풀을 풀여 (肺)	파리 파를 파레

춤이	춤을	춤에 (舞)	추미	추를	추며
집이	집을	집에 (家)	자비	자불	자비
옷이	옷을	옷에 (衣)	오시	오슬	오서
콩이	콩을	콩에 (豆)	—	—	—
낫이	낫을	낫에 (畫)	나지	나줄	나께
꽃이	꽃을	꽃에 (花)	꼬치	꼬출	꼬쳐
부엌이	부엌을	부엌에 (厨)	부어카	부어글	부어께
밭이	밭을	밭에 (田)	밭어	밭를	밭에
앞이	앞을	앞에 (前)	아피	아풀	아펴
밖이	밖을	밖에 (外)	밖기	밖글	밖거
넋이	넋을	넋에 (魄)	넉시	넉슬	넉서
흙이	흙을	흙에 (土)	흘기	흘글	흘거
꽃이	꽃을	꽃에 (谿)	꽃시	꽃슬	꽃서
삶이	삶을	삶에 (生)	살미	살슬	살서
값이	값을	값에 (價)	값시	값슬	값서

第二節 語幹과語尾

第八項 用言의 語幹과 語尾는 區別하여 칙는다. 例: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食)
신다	신고	신어	신으니 (履)
믿다	믿고	믿어	믿으니 (信)
올다	올고	올어	온나(變格)(啼)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越)
임다	임고	임어	임으니 (被)

웃다	웃어	웃으니 (笑)	떨어지다(落)	떠리지다
찾다	찾아	찾으니 (尋)	들어가다(歸)	도라가다
쫓다	쫓아	쫓으니 (從)	들어가다(入)	드려가다
같다	같고	같으니 (同)	벌어지다(坼)	벼리지다
높다	높고	높으니 (高)	벌어먹다(乞食)	벼리먹다
좋다	좋아	좋으니 (好)	흩어지다(散)	흩어지다
깎다	깎고	깎으니 (削)	엎어지다(覆)	엎어지다
앉다	앉고	앉으니 (坐)	일어나다(起)	이려나다
많다	많아	많으니 (多)	(2) 그 語源이 分明하지 아니한 것	
늙다	늙고	늙으니 (老)	나리나다(頤)	날아나다
젊다	젊어	젊으니 (少)	비리보다(望兒)	발아보다
늙다	늙고	늙으니 (廣)	비리지다(坼)	벌아지다
늙다	늙어	늙으니 (拔)	배리먹다(乞食)	벌이먹다
읊다	읊고	읊으니 (吟)	불거지다(凸)	불어지다
없다	없고	없으니 (無)	부리지다(折)	불어지다
있다	있고	있어 있으니 (有)	쓰러지다(麌)	쓸어지다
[附記]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語源이 分明한 것은 本語幹과 本語尾를 區別하여 칙고, 그 語源이 分明하지 아니한 것은 本語幹과 本語尾를 區別하여 칙지 아니 한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第三節 動詞의 被動形과 使役形

第九項 動詞의 語幹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불어서 被動=이나 使役으로 될 어는, 소리가 变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다 그 原形을 밝히어 칙는다. 例 : (甲을 取하고,

- (1) 그 語源이 分明한 것
- | | |
|---------|------|
| 甲 | 乙 |
| 넘어지다(倒) | 너머지다 |
| 늘어진다(延) | 느리지다 |

乙을 버린다.)

甲

맡기다(使—任)	맡기다
쫓기다(被—逐)	쫓기다
읊기다(使—移)	읊기다
웃기다(使—笑)	(—) 諸幹의 끝 “근”이 “ㄴ”, “님”과 및 “오”의 위에서 줄어질적. 例 :
솟구다(使—聳)	(1) “ㄴ” 위에서 길다(長) 기나 기나
갈리다(被—掛)	울리다(啼—穿)
울리다(使—穿)	울리다(被—釣)
낚이다(使—食)	풀니다
먹이다(使—印刷)	낚기다
쌓이다(使—積)	풀니다
삭이다(使—消化)	먹기다
핥이다(被—舐)	쌓기다
돌우다(使—挑)	차마다
닫히다(被—閉)	사기다
먹히다(被—食)	핥하다
박히다(被—印刷)	핥하다
잡히다(被—把)	핥하다
앉히다(使—坐)	핥하다
얽히다(被—纏)	핥하다

第四節 變格 用言

第一〇項 다음과 같은 用言은, 각각 그 特有한 變則을
좇아서 諸幹과 諸尾가 變함을 認定하고, 그 變한대로 读=는다.

(一) 諸幹의 끝 “근”이 “ㄴ”, “님”과 및 “오”의 위에서
줄어질적. 例 :

(1) “ㄴ” 위에서

길다(長) 기나 기나

울다(啼) 우나 우나

(2) “님” 위에서

걸다(磨) 김니다 김시다

啐다(遊) 금니다 금시다

(3) “오” 위에서

걸다(磨) 가오 가오니

놀다(遊) 노오 노오니

[附記] “ㄷ, ㄹ, ㅅ, ㅈ” 위에서도 주는 음이 有지마는,
안 주는것으로 原則을 簡되, 未來의 “근”과 尊敬의 “시”
위에서는 도무지 나지 아니하는것으로 한다. 例 :

놀다(遊) 놀때 노시다

알다(知) 알때 아시다

(二) 諸幹의 끝 “ㅅ”이 훌소리 위에서 줄어질적. 例 :

낫다(轡) 나아 나오니

잇다(續) 이어 이으니

(三) 語幹의 끝 “-ing”이 줄어질적. 예:

한국어(白) 한영어 한영한

(四) 誓願의 “나”¹¹ 흐스코 의례식 “군”¹²로

例：

를다(鄒)를다(鄒)를다(鄒)

(五) 韓文의 글 “ㅂ”이 훌소리 위에서 “ও”(훌소리가)

“아”인 때는 “오”(로) 畘할 것. 예

가깝다(近) 가까와 가까우나

무겁다(重) 무거워 무거우니

돌다(吐) 罷怠 罷怠

(四) 比較

우습다(笑) 우스워 우스우니

김다(補) 기원 기우나

월간한국 2010. 10 | 11

(六) 詞幹의 끝 音節 “학”의 아래에 쇠 韵尾 “아”가

하다(爲) 하여 하여도 하여야 하였으나 하였다

일하다(做) 일하여 일하려고 일하는 바에는 있으나 일하였다.
착하다(善) 착하여 착하여도 착하여야 착하였으나 착하였다.

第五節
발침

第一項 在來에 쓰던 별침以外에, 그うち 쿠미교
는 나머지 뒷부분은 그대로 써서의 열여덟 별침을 더
쓴다.

(七) 語尾의 끝 音節 “르”的 아래에 치; 語尾 “어”가 “르”로, 語幹 아래에 오는 “었”이 “렀”으로 날춰. 例:

이로다(至) 이로라 이로렸다

푸른다(靑) 푸르리 푸르렀다

누르다(黃) 누르리 누르렀다

八) 韓의 글 言辭이 “르”로 된 用言에, 語尾 “어,

아니 놀랐어. 아내에 대한 “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현대문학전집

거름단(漬) 걸리 거름단 걸리단

中語(釋) 卷之二

누르다(壓) 눌러 눌렀다 눌리다

호르다(流) 흘림 흘림다 흘리다

卷之三

〔變格 用言〕 깨닫다(覺) 걷다(步) 걸다(編)	로다(盜) 드높다(宏壯) 무릎(膝) 신(新)
걸다(汲) 낀다(焦) 달다(走) 다달다(臨)	금(鍼) 신다(欲) 진(眞) 진다(近)
들다(聽) 몰다(問) 불다(殖) 실다(載)	형경(布刑) 앞(前) 엎다(覆) 엎(側)
을걸다(稱)	온(英)
그발침 꽂다(插) 갖다(備) 꾸짖다(叱) 콧다(凶)	흐발침 낳다(產) 넣다(入) 충다(放) 빙다(辦)
낮다(晝) 낮다(低) 늦다(晚) 맞다(迎)	낳다(接) 뺏다(辟) 쌓다(積) 징다(春)
맞다(適) 맞다(被打) 맷다(結) 베遲다(爬)	종다(好)
부르짖다(叫) 빛(債) 빛다(釅) 췄다(裂)	〔變格 用言〕 거명다(黑) 기다랗다(長) 깊다랗다(深)
잦다(頻) 찾다(後值) 찾다(涸) 젖(乳)	높다랗다(高) 누렇다(黃) 동그렇다(圓) 벌겋다(赤)
젖다(濕) 젖다(後傾) 찾다(吠) 찾다(尋)	어느랗다(赤) 자그맣다(小) 커다랗다(大) 짜碜다(青)
애꿎다(不孝) 잊다(忘)	허옇다(白)
꽃(花) 허(皮膚) 허(酒) 헛(錐)	그발침 깎다(削) 쥐다(折) 쥐다(經) 낚다(釣)
吳(捕獸機) 허(帆) 허(幾) 허(色, 光)	닦다(拭) 뒹다(添垢) 뭇다(東) 밖(外)
矣(矣) 쫓다(逐) 쫓다(從) 웃(揆)	볶다(炒) 섞다(混) 솔다(抄) 얹다(編)
을(惄)	거발침 뒷(魄) 뒷(配分) 섟(質) 섟(劄)
거발침 틀(頓) 부엌(厨)	거발침 깨엄다(撒) 암다(坐) 엊다(置上)
근발침 틀(末) 갈다(同) 걸(表) 걸(傍)	근발침 품다(批) 궂다(絶) 괜찮다(無妨) 귀찮다(厭苦)
날(惱) 말다(任) 말다(喚) 머리랄(枕邊)	많다(多) 침잖다(偉) 하찮다(不大) 언짢다(不好)
풀(陸) 밀(底) 바깥(外邊) 밟(田)	근발침 흙(向方) 흙(指) 흙(代價)
벌다(迫) 벌다(滤) 벌다(吐) 벌(湯)	흐발침 품다(跪) 품다(沸) 품다(未滿) 품다(第)
부를를다(腫) 불다(符) 살(股脣) 솔(鼎)	뚫다(耗) 숨다(搗米) 숨다(厭) 숨다(病)
술(量) 읍다(濃) 풀(豆) 풀(單)	옹다(可) 원다(失)
흘다(散) 알다(淺) 열다(淺)	근발침 흡다(祇) 흡다(挾拔)
교반침 깊다(報) 깊다(深) 흐(活)	근발침 흐다(詰)

마발침	굵(“구멍”의 非標準語)	님(“나무”의 非標準語)
劬발침	값(價)	가엾다(憐) 맥없다(無聊) 부질없다(漫)
		상없다(恃常)실없다(不實) 시름없다(愁)없다(無)
		열없다(小膽)
서발침	겠다(未來)	있다(過去) 었다(過去) 있다(有)

第六節 語源 表示

第一二項 語幹에 “이”가 불어서 名詞나 副詞로 되고,

“음”이 불어서 名詞로 轉成할 칙에는, 乃至音化의 有無를勿論하고,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看는다. 例 :

(1) “이”가 불어서 名詞로 된 것	길이(長)	깊이(深)	높이(高)	땅밭이(汗衣)
	다듬이(砧撻)	맞이(迎)	먹이(食糶)	미팅이(推窓)
	벌이(勞得)	벼룩이(駆逐機)	살림살이(生活)	손잡이(手把)
	쇠붙이(鐵屬)	풀이(解)	해돋이(日出)	

(2) “이”가 불어서 副詞로 된 것

같이(同)	굳이(固)	길이(氷)	깊이(深)
높이(高)	많이(多)	설없이(不贊)	적이(少)
좋아(好)	짓궂이(故嬈)		
(3) “음”이 불어서 名詞로 된 것			

걸음(步) 목음(束) 믿음(信仰) 즐음(懸) 풀값음(報勞) 얼음(冰) 얹음(綿) 물음(啼) 웃음(笑) 잊음(忘)

他詞로 轉成할 칙에는,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看자 아—
니한다. 例 :

(1) 名詞	까마귀(鳥)	귀여거리(聾)	뜨더귀(分裂)	마감(決算)
	마개(怪)	마중(出迎)	무덤(墳)	불경 이(紅草)
	비렁뱅이(乞者)	쓰레기(廢物)	죽점(屍)	코뚜레(鼻木)
	올가미(活細)			

第一四項 名詞 아래에 “이”가 불어서 他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할 칙에는, 乃至音化의 有無를勿論하고, 그 名詞의
原形을 밝히어 看는다. 例 :

(1) 他詞로 變한 것	곳곳이(處處)	날날이(個個)	몫이(每分)	샅샅이(每隙)
	집집이(家家)	앞앞이(每人前)	그릇그릇이(每器)	
(2) 뜻만이 變한 것	곰배풀이(曲臂人)	네눈이(四目犬)	삼발이(三足鐵)	
	칠목발이(跛行人)	애꾸눈이(隻眼人)	육손이(六指人)	

第一五項 名詞 아래에 “이”以外의 脣소리가 불어서 他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할 칙에는, 그 名詞의 原形을 밝히어 看자 아니한다. 例 :

꼬락서니(捺) 고드머리(噠) 모가지(項) 바깥(外邊)

바가지(匏) 쟈라기(瓠) 사라구나(股間) 짜개(豆片)
 지봉(罇甕) 지푸라기(瓠片)

第一六項 名詞나 語幹의 아래에 端소리로 첫 소리를 삽=는 音節이 붙어서 他詞로 變하거나 뜻만이 變할적에는, 그 名詞나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

(一) 名詞 아래에 端소리가 올 것

(1) 他詞로 變한 것

꽃담다(芳) 값지다(有價) 빛나다(輝) 훌지다(簡單)

(2) 뜻만이 變한 것

결장(終局) 부엌터기(炊婦)빛깔(色彩) 낫깃장이(鎚工)
 옆덩이("옆"의 非標準語) 잎사귀("잎"의 非標準語)

(二) 語幹 아래에 端소리가 올 것

(1) 他詞로 變한 것

낚시(釣針) 늙장이(老物) 풀께질(解綴) 묘개(叢物)

(2) 뜻만이 變한 것

갈작갈작하다(搔) 굳다랗다(顆大) 긁적긁적하다(搔)
 깊숙히다(幽) 넓적히다(頗廣) 높다랗다(甚高)
 늙수그레하다(老) 틀작틀작하다(頓挫) 암죽암죽하다(瘡痕)
 깨죽깨죽하다(拉扯) 엎드리다(伏) 엉자르다(覆)
 흘조리다(吟)

〔附記〕 下記의 말은 그 語源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

(1) 덧발침의 끝소리가 따로 아니 나는 것
 굴막하다(未滿) 널다랗다(甚廣) 널직하다(頗廣)

떨떨하다(顛躑) 말끔하다(清潔) 떨속하다(清楚)
 말짱하다(全清) 실쭉하다(頗厭) 실금하다(厭忌)
 헐찌헐찌하다(頻屈) 알딱하다(稍薄) 골벙(朽病)
 골탕(朽敗) 실증(脈症) 올무(羈)

(2) 語源이 分明하지 아니한 것

납작하다(平廣) 빠직빠직하다(頻摘) 말끔하다(清潔)
 멀속하다(清楚) 멀짱하다(全清)

第一七項 語幹이나 語根에 "보"가 붙어서 他詞로 轉成=하거나 뜻만이 變할적에는,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고달포다(疲)

고닳보다

고프다(餓)

굶보다

슬프다(悲)

숨보다

아프다(痛)

앓보다

가쁘다(憐)

감보다

구쁘다(食念生)

깃보다

기쁘다(喜)

깃보다

나쁘다(惡)

낫보다

미쁘다(憎)

밉보다

비쁘다(恚)

옛보다

第一八項 動詞의 語幹에 "치"가 붙어서 된 말은 그 語幹의 原形을 밝히어 적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丙을

(20) 第三章 文法에關한것

(20)

버린다.)		
甲	乙	丙
놓치다(放)	丟치다	노치다
덮치다(襲)	덮치다	—
빨치다(伸)	빼치다	빠치다
발치다(支)	벗치다	바치다
엎치다(覆)	업치다	—
第一九項 形容詞의 語幹에 “이”나 “는”나 또는 “후”가 불어서 動詞로 轉成한것은, 그 語幹의 原形을 밟아서 爾- 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
굳히다(使固)	구쳐다	—
굽히다(屈)	구펴다	—
좁히다(使狹)	조펴다	—
굵히다(使凶)	구쳐다	—
짓허다(使後頃)	짓쳐다	—
젖허다(使後頃)	젖쳐다	—
밝히다(使明)	발키다	—
넓히다(使廣)	넓펴다	—
육이다(使內曲)	오기다	—
높이다(使高)	노펴다	—
갖추다(備)	가추다	—
낮추다(使低)	나추다	—
늦추다(使緩)	느죽다	—

(21) 第三章 文法에關한것

(21)

맞추다(使合)

마추다

第二〇項 語源的 語幹에 다른 소리가 불어서 토로 轉-
成할 爾에는, 그 語幹의 原形을 밟아서 爾지 아니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

마커(그것마저)

맞어

부러(오늘부러)

붙어

쫓아

조치(너조치)

—

第二一項 “하다”가 불어서 되는 用言의 語源的 語根에
“는”나 “이”가 불어서 副詞나 名詞가 될 爲에는, 그 語源을
밟아서 爾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副詞

甲

乙

꾸준히(如一)

꾸준니

넉넉히(寬裕)

넉넉이

明晰히(分明)

똑똑히

답답히(鬱鬱)

답답이

꼿꼿이(直長)

꼿꼿이

참찌이(太甚)

참찌기

반듯이(正平)

반듯이

큼직이(稍大)

큼직이

(2) 名詞

—

건건이(僻類)

건건이

배불뚝이(高腹人)

배불뚝기

코남작이(平鼻人) 코남자기

第二項 擬聲 擬聲的 副詞에나, “하다”가 불지 아니하는

語源的 語根에 “이”나 “하”나 또는 다른 소리가 불어석
名詞나 副詞로 될 것이다, 그 語源을 밝히어 죄지 아니=
한다. 例 :

(1) 擬聲의 副詞에 “이”가 불어석 된 말

钢铁리(鉛) 페꼬리(鷺) 개구리(蛙) 귀뚜라미(蟋蟀)
기리기(雁) 날라리(胡笛) 떡마구리(啄木鳥) 매미(蟬)
빼꾸기(布穀)

(2) 擬態的 副詞에 “이”가 불어석 된 말

깍두기(切根黃) 누르기(壓搾) 더더기(添垢) 떠벌리(喧騒人)
더교리(輕率人) 두드르기(觸擊) 무더기(推積) 빼쭈기(易怒人)
살사리(奸諭人) 칼작두기(切齒) 푸거기(脆弱物) 얼룩기(斑毛黑)
기란지(牛尻骨) 고름(臍)

(3) “하다”가 아니 불는 語根에서 된 말

동그라미(圓形) 부스러기(碎屑) 삼사미(三爻) 젠자미(密約)
갑자기(倉卒) 반드시(必) 슬며시(隱然) 일자기(卽)

꿈자락꿈자락(蓋物貌) 간드랑간드랑(搔搔貌)

第二項 語源的 語根에 “하나”가 불어석 用言이 된 말=은, 그 語根과 “하다”를 区別하여 죄는다. 例 :

딱하다(快) 척하다(善) 풋하다(冬溫) 훌륭하다(贊美)
급하다(急) 속하다(速)

第二項 語源的 語根에 “이다”가 불어석 된 用言은, 그
根本을 밝히어 죄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번쩍이다(閃)

번져기다

번득이다(翻)

번드기다

움직이다(動)

움지기다

第二項 用言의 語幹에 다른 소리가 불어석 된 것이라=
도, 그 뜻이 아주 먼 말로 变한 것은, 그 語幹이나 語根=의 原形을 밝히어 죄지 아니한다. 例 :

고쳐다(改) 바쳐다(納) 도리다(扶) 드리다(獻)
부처다(寄) 거두다(收) 미루다(撫托) 이루다(成)
기르다(養) 만나다(逢) 참잖다(偉)

개란지(牛尻骨) 고름(臍) 금도리(壁下部) 넓치(廣魚)
느림(緩垂物) 다리(腿) 도리깨(蓮枷) 목거리(喉病)

무녀리(初生獸) 코끼리(象)

第二項 語幹이나 語根에 “이”, “하”, “가”가 불을 죄여, 許=
禁止이나 語根의 끝 音節의 홀소리가 그 “ㅏ” 소리를 허=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 지라도, 그 本 홀소리를 바꾸지
아니한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먹이(食料)

乙

먹이

목침이(折衷)

목침이

박이옷(緊縫衣)

백이옷

먹이다(便食)

먹이다

嬖이다(使印刷刷)

嬖이다

속이다(撕)

속이다

죽이다(殺)	죽이다	
뜨이다(使離)	뜨이다	
보이다(示)	보이다	
쌓이다(積)	쌓이다	
막히다(塞)	막히다	
박히다(被印刷)	박히다	
잡히다(被把)	잡히다	
맡기다(使任)	맡기다	
벗기다(使脫)	벗기다	
쫓기다(被逐)	쫓기다	
숨기다(使隱)	숨기다	
풀기다(使摘)	풀기다	
안기다(被抱)	안기다	
옮기다(移)	옮기다	
〔附記〕 이 境遇에 들어 습하여 아주 단 音節로만 나=는 것은 소리대로 칙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丙을 버=		
린다.)		
甲	乙	丙
내다(使出)	나이다	내이다
깨다(使解)	깨이다	깨이다
파다(使掘)	파이다	파이다

第一項 끝점이 있는 用言의 語根이나 語幹에 다음과 같은 捷尾辭가 붙어서 딴 獨立한 詞根가 成立될 칙에는,

- 그 捷尾辭의 原形을 밝히어 칙자) 아니한다. 例: (甲을 取=

하고, 乙을 버린다.)

(1) “황(黃)다”

甲	乙
가렇다	개啷다(黑)
노랗다	뉴랄다(黃)
빨갛다	별정다(赤)
파랗다	파랑다(青)
동그렇다	동그렁다(圓)
차느렇다	차느렁다(չ)
(2) “엄(음)다”	
간지럼다(辨)	간질엄다
무겁다(重)	무엄다
미덥다(信)	믿엄다
부드럽다(柔)	부들엄다
시끄럽다(騷)	시끌엄다
징그럽다(慘)	징글엄다
어지럽다(亂)	어질엄다
웃슴다(笑)	웃음다
〔附記〕 “없다”만은 길라 칙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부질없다(漫然)	부지없다
상없다(尙常)	—
시름없다(愁続)	시르없다

第七節 品詞 合成

第二八項 둘 以上의 品詞가 複合할적에는 소리 接變의 有無를 無論하고, 각각 그 原形을 밝히어 看는다. 例 :

(一) 소리가 變하지 아니할적

(1) 담소리와 훌소리 사이

국그릇(器器)	눈풀(淚)	밀별(長夜)	밤낮(晝夜)
밥벌이(煮食)	옷속(衣內)	맞침(對拏)	꽃침(花辰)
걸잡다(收拾)	돌보다(重視)	잇달다(連續)	웃보다(底觀)

(2) 담소리와 훌소리 사이

손아귀(絃弧)	집안(家內)	방울(張羅)	홀아비(鵠夫)
친어머니(親母)	큰언니(長兄)	설얼음(薄冰)	풀오리(野鴨)
속옷(内衣)	참외(眞爪)	눈웃음(目笑)	손위(手止)
감알다(裁量)	칠없다(無知)	칠없다(無知)	물오르다(水昇)

但 漢語의 不分明할적에는, 그 原形을 밝히어 看자 아니한다. 例 :

며칠(幾日) 아자비(叔) 오라비(舅) 이틀(二日)

(二) 소리가 變할적

(1) 담소리와 훌소리 사이

국말이(羹飯)	맡며느리(長婦)	칼날(刀刃)	밥풀(炊飯水)
젖몸살(乳痛)	몇날(幾個日)	흘몸(單身)	흙씨(土香)
반바다(受便)	번놓다(放縱)	집나다(往)	맞먹다(對等)
빛나다(光輝)	걸넘다(阜上)	엎누르다(抑壓)	ჯ주리다(築)

第三章 文法에關한것

(2) 담소리와 훌소리 “아, 어, 오, 우, 으” 사이

옷인(衣人)	부엌인(廚內人)	첫아들(初男)	꽃아래(花下)
무릎아래(膝下)	팔알(豆粒)	웃어른(長人)	젖어미(乳母)
흘옷(單衣)	웃옷(上衣)	헛웃음(虛笑)	술음식(純飲食)
값없다(無價)	넋없다(無魂)	웃오르다(漆毒)	

(3) 담소리와 훌소리 “아, 어, 오, 우, 으” 사이 (이)

境遇에는 그 훌소리의 첫소리로, 모 ^諸 音化한 “노” 소리가 뒷난다.)
--

갓양(冠緣)	물약(水藥)	잣엿(稻飴)	종엿(豆飴)
답묘(鼈燭)	놋요강(鎰湯器)	판윷(便帽)	밤윷(小帽)
속깊(裏葉)	논월(蓄事)	들월(野事)	밤이슬(夜露)
검이불(拾糞)	옷입지(衣主)	공월(徒勞)	낮월(晝月)
꽃잎(花葉)	부엌월(厨事)	밭이랑(田畔)	앞이마(前額)
흙월(土事)	설악다(雪峯)	침입다(賴)	낯육다(熟面)
넋월다(失魂)			

[附記] 그 옷 品詞의 獨立한 소리 “노” 이 둘 소리로 變할적에는 變한대로 看되, 두 말을 隨別하여 看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홀아버지(祖父)	한아버지
할머니(祖母)	한어머니
나기만 하는 것은 나누며로 看고, 도무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누며로 看는다. 例 :	

나기만 하는것	아니 나는것
말총(馬懸)	마소(牛馬)
물방아(水砧)	무자위(唧筒)
바늘쌈(針包)	바느질(針工)
불꽃(火焰)	부십(火鉢)
쌀밥(米飯)	차진(米塵)
솔뿌리(松根)	소나무(松樹)
찰벼(鷄稻)	차조(鷄粟)
활촉(弓鍛)	화살(弓矢)
第三〇項 複合名詞 사이에서 나는 “사이 人” 소리는 훌- 소리 아래에서 날자에는, 위의 훌소리에 “人”을 받치고, Dual 소리와 Dual 소리 사이에서는 도무지 격지 아니한다. 예 :	
훌소리 밀	당소리 밀
뒷간(則間)	문간(聞間)
귓걸(耳夾)	풀걸(波紋)
콧날(鼻線)	칼날(刀刃)
뒷바(後川)	앞바(前川)
담뱃대(檻竹)	전양대(見樣木)
콧등(鼻脊)	손등(手背)
잇몸(齒齦)	팔골(裸體)
벗풀(川水)	강풀(江水)
깃발(旗旒)	글발(字跡)
나룻배(載木船)	소금배(載鹽船)
잇새(齒間)	발새(趾間)

벗소리(雨聲)	총소리(銃聲)
가와장(瓦片)	구들장(礫石)
곳집(倉庫)	옹집(土幕)
第三一項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쳐는다. 예 : (甲= 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멥쌀(梗米)	멥쌀
찹쌀(糯米)	찹쌀
좁쌀(粟米)	조쌀
햅쌀(新米)	햅쌀
수개(牲犬)	승개
암개(牝犬)	암개
회파람(噓)	횡파람
안팎(內外)	안팎
第八節 原詞와 接頭辭	
第三二項 接頭辭와 語根이 어울리서 한單語를 이룰 때에는, 소리가 接變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각 原形을 봐서 쳐는다. 예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셋노랗다(眞黃)	셋노랗다
싯누렇다(深黃)	신누렇다
짓이기다(爛涅)	짓이기다
엇나가다(違行)	언나가다

第四章 漢字語

漢字音은 現在의 標準發音을 塗아서 表記함으로써 原則을 삼는다. 따로 在來의 漢字字典에 規定된 字音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第一節 葵소리만을 變記할것

第三三項 “、”字 읍은 죄다 “ㅏ”로 적는다. 例：(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간친(懲親)

사상(思想)

卷之三

단아(咎)

아동(兒童)

第三四項 “시”字 楚은 죄다 “시”로 써는다. 例: (用을
하고, 乙을 버린다.)

개량(改良)
내외(内外)

二

거래(去來)	되용
매일(毎日)	의일
배양(培養)	번양
색채(色彩)	식채
재능(才能)	지능
책자(冊子)	책자
태모(胎母)	태모
해변(海邊)	해변
애식(愛惜)	의식
第三五項 “ㅅ, ㅈ, ㅊ”을 첫소리로 삽는 “ㅌ, ㅊ, ㅍ, ㅎ”	“ㅏ, ㅓ, ㅗ, ㅜ”로 치는다.例: (甲을 取하고, 乙을
린다.)	의식
甲	乙
사회(社會)	사회
서류(書類)	서류
소년(少年)	소년
수석(水石)	수석
장단(長短)	장단
경중(鄭重)	경중
조선(朝鮮)	조선
중심(中心)	중심
차륜(車輪)	차륜
처자(妻子)	처자

第三項 “의, 희”의 字母은 本音대로 写는 것을 原則으로

의원(醫員) 주의(主義) 희망(希望) 유호(遊翫)
第四〇項 “그, 빠, 쇠, 쳐”의 字음은 “기, 비, 시, 치”로
쳐는다.例:(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캐수(桂樹)	계수
사례(謝禮)	사례
연미(連袂)	련미
폐부(肺腑)	폐부
혜택(惠澤)	혜택
(2) 세계(世界)	세계
제도(制度)	제도
처류(滯留)	처류

第三七項 “人, 弟, 弟”을 첫소리로 삼는 “-”를 가진 字는 그 本音대로 써는 것을 原則으로 삼고, 特別한 境遇에 限하여例外를 둔다. 例 :

기차(汽車)	고차
일기(日氣)	일기
끈비(困憊)	끈비
시란(柴炭)	식란
치중(軛重)	치중

第四一項 “쉬, 죄”의 字들은 “수, 쥐”로 쓰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금실(琴瑟) 질책(叱責) 편집(編輯) 법칙(法則)
천의(襯衣)
第三八項 “ㅁ, ㅂ, ㅍ”으로 첫소리를 삽는 “—”를 가진
낱말은, 그 母音을 “ㅏ”로 뺀것으로 原則을 삽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第二節 당소리만을 變記할것

第四項 “나, 너, 뇨, 뉴, 나, 빠”가 單語의 첫소리로 될 때에는, 그發音을 따라 “아, 어, 요, 유, 이, 예”로 죄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여자(女子) 너자
영변(寧邊) 네변
요도(尿道) 뇨도
육혈(臘血) 유헬
이토(泥土) 나토
비묘

但 單語의 첫소리 以外의 境遇에 죄는 本音대로 죄는다. 例:

甲 乙
남녀(男女) 부녀(婦女) 칙누(織紐)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한다. 例:
제집녀(妾)

第四項 “라, 로, 르, 래, 르”가 單語의 첫소리로 될 때에는 “아, 어, 요, 유, 이, 예”로 죄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부녀(婦女) 낙원(樂園)
노인(老人) 농묘(陵墓)
누각(樓閣) 뉴각(樓閣)
능묘(陵墓) 뉴묘(陵墓)
내일(來日) 래일
뇌성(雷聲) 르성
但 單語의 첫소리 以外의 境遇에 죄는 本音대로 죄는다. 例:

甲 乙
양심(良心) 향심(鄉心)
역사(歷史) 역사(歷史)
요리(料理) 료리

유수(流水) 투수
이화(李花) 리화
예의(禮儀) 레의

但 單語의 첫소리 以外의 境遇에 죄는 本音대로 죄는다. 例:

기량(敬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재료(材料) 염료(染料)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桃李) 행리(行李) 사례(謝禮) 혼례(婚禮)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한다. 例:

어질량(良)

第四項 “라, 로, 르, 래, 르”가 單語의 첫소리로 될 때에는 “아, 어, 요, 유, 이, 예”로 죄는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낙원(樂園) 농묘(陵墓)
노인(老人) 뉴각(樓閣)
누각(樓閣) 뉴묘(陵墓)
내일(來日) 래일
뇌성(雷聲) 르성

乙

부녀(婦女) 향심(鄉心)
역사(歷史) 역사(歷史)
요리(料理) 료리

거래(去來) 온래(往來) 지로(地雷) 낙로(落雷)

또 漢字의 代表音은 本音으로 한다. 例 :

다락루(樓)

第三節 담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變記할것

第四五項 “더, 뜨, 둑, 디, 레”의 字音은 “거, 조, 주, 지”, “체”로 쓰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진답(田畠)	연답
조수(鳥獸)	도수
주팡(駐纏)	두팡
지구(地球)	디구
체자(弟子)	데자

第四六項 “더, 뜨, 레”의 字音은 “초, 츄, 체”로 쓰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친지(天地)

친지(天地)

철도(鐵道)

철도(鐵道)

초미(貂尾)

초미(貂尾)

축류(觸體)

축류(觸體)

체재(體裁)

체재(體裁)

音 한가지로 읽는 字音은, 그 發音을 따라 俗音대로 쓰는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개인(個人)

노숙

증식

함께

부모

급비

인쇄(印刷)

인설

자우

죽지

봉토

파권

도화(圖畫)

도화

류고

유기(鑑器)

류고

기인

노숙

증식

함께

부모

급비

인설

자우

죽지

봉토

파권

도화

류고

유기

第四八項 在來의 字典에 아무 俗音 規定이 없으되, 本音과 俗音으로 읽는 것은 그 發音대로 쓰는다. 例 :

本音

가택(家宅)

당분(糖分)

동구(洞口)

목근(木槿)

목단피(牡丹皮)

모란화(牡丹花)

俗音

시택(總宅)

사탕(砂糖)

동죽(洞燭)

모과(木瓜)

第四七項 在來의 字典에 아무 俗音 規定이 없으되, 俗

쓰장(書狀)	상래(狀態)
십일(十一日)	사월(十月)
제출(提出)	보리(菩提)
팔월(八月)	파월(四月八日)
양신(良辰)	갑진(甲辰)
육월(六月)	유월(六月)
제49項 두 훌소리 사이에서 “ㄴ”이 “근”로만 나는 것은 “근”으로 칙고, “근”이 “ㄴ”으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칙는다.例：(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1) 허락(許諾)	허락
대로(大怒)	대노
회령(會寧)	회령
(2) 의논(議論)	의론
제50項 두 훌소리 사이에서 “ㄴ”이 “근”로도 나는 율이 있으되, 그것은 本음대로 칙는다.例：(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기념(紀念)	기념
기능(技能)	기능
제51項 漢字音이 連發될 적에, “ㄴㄴ”이 “근근”로도 나는 것은 本音을 原則으로 하고, “근 근”도 詐容하되, “ㄴ근”으로 칙는다.例：(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을 詐容한다.)	
甲	乙
관념(概念)	관념

곤난(困難)	곤란
안녕(安寧)	안녕
본능(本能)	본능
만년(萬年)	만년
제52項 말의 끝 音節의 훌소리가 줄어지고 短소리만 남은것은, 그 위의 音節에 받침으로 칙는다.例：(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본말	甲
아기야(小兒)	악아
기려기야(雁)	기려야
애꾸눈이야(隻眼人)	애꾸눈아
어찌꺼녁(昨夕)	엊꺼녁
어찌그거께(數日前)	엊그거께
까마귀까치(烏鵲)	까막까치
가지고(持)	갖고
미치고(及)	잇고
티디고(蹄)	딛고
온가지(各種)	온갖
일끼기(耳)	일찌
제53項 토만이나 또는 토와 名詞가 함께 줄어진 것은 소리대로 칙는다.例：	
본말	준말

나는(我)	나를(我)	나를(汝)	나를(汝)	나는(我)	나는(我)
난	날	날	날	난	난
본말	본말	본말	본말	본말	본말
건느어(渡)	건느었다	건너	건넜다	건느어	건느었다
처르어(經)	처르었다	처리	처렸다	처르어	처렸다
크어(大)	크었다	커	컸다	크어	컸다
기쁘어(喜)	기뻤었다	기뻐	기뻤다	기쁘어	기뻤다
第五四項 語幹의 끝 홀소리 “—”가 “어”소리를 만나서 줄어질 때에는 준대로 칙는다. 例：					
본말	준말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건느어(渡)	건느었다	건너	건넜다	건느어	건느었다
처르어(經)	처르었다	처리	처렸다	처르어	처렸다
크어(大)	크었다	커	컸다	크어	컸다
기쁘어(喜)	기뻤었다	기뻐	기뻤다	기쁘어	기뻤다

부어(注) 부었다	부어(注) 부었다	부어(注) 부었다	부어(注) 부었다	부어(注) 부었다	부어(注) 부었다
그리어(畫) 그리었다	그리어(畫) 그리었다	그리어(畫) 그리었다	그리어(畫) 그리었다	그리어(畫) 그리었다	그리어(畫) 그리었다
(3) 보이어 보이었다	보이어 보이었다	보이어 보이었다	보이어 보이었다	보이어 보이었다	보이어 보이었다
뜨이어 뜨이었다	뜨이어 뜨이었다	뜨이어 뜨이었다	뜨이어 뜨이었다	뜨이어 뜨이었다	뜨이어 뜨이었다
쓰이어 쓰이었다	쓰이어 쓰이었다	쓰이어 쓰이었다	쓰이어 쓰이었다	쓰이어 쓰이었다	쓰이어 쓰이었다
건느이어 건느이었다	건느이어 건느이었다	건느이어 건느이었다	건느이어 건느이었다	건느이어 건느이었다	건느이어 건느이었다
(4) 잡히어 잡혀었다	잡히어 잡혀었다	잡히어 잡혀었다	잡히어 잡혀었다	잡히어 잡혀었다	잡히어 잡혀었다
얹히어 얹혀었다	얹히어 얹혀었다	얹히어 얹혀었다	얹히어 얹혀었다	얹히어 얹혔다	얹히어 얹혔다
줄이어 줄이었다	줄이어 줄이었다	줄이어 줄이었다	줄이어 줄이었다	줄여 줄였다	줄여 줄였다
불이어 불이었다	불이어 불이었다	불이어 불이었다	불이어 불이었다	불여 불였다	불여 불였다

第五六項 語幹의 끝 晉節 “ه”的 “ㅏ”가 줄어질 때에는 “ㅎ”을 中間에 놓음을 原則으로 하고, 또 위의 晉節에 받침으로 쓴도 許容한다. 例：(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도

許容하고, 丙은 버린다.)

본말	甲	乙	丙
가하다(可)	가高等学校	가高等学校	가타
흔하다(多)	흔하다	흔하다	흔타
부지런하다(勤)	부지런하다	부지련하다	부지련다
아니하다(不)	안정하다(안하다)	않다	안라
청결하다(精潔)	청결하다	청졌다	청절라
다정하다(多情)	다정하다	다졌다	다정라
第五七項 다음의 말들은 그 語源의 原形을 밝히자 아-			
나하고 소리대로 칙는다. 例：(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결코(決)
하마터면(幾乎)
하망더면(幾乎)

하마터면(幾乎)
하망더면(幾乎)

第五八項 “시, 지, 치”로 끝난 語幹에 “이”가 와서, 소=리가 줄어, 音節이 줄어질 때에는,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을 許容한다. 例：

본말	甲	乙
오시어(來)	오서	오서
가지어(持)	가지	가지
쳐어(持)	쳐	쳐

第五九項 複合名詞 사이에 있는 “의”의 “—”가 줄어지=고 “)” “가” 위나 아래의 훌소리에 섞이어서 발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例：

본말	준말	준말
소의고기	쇠고기	쇠고기
닭의알	닭갈	닭갈

第六章 外來語表記

第六〇項 外來語를 표記할 때에는 다음의 條件을 原則으로 한다.
 一. 새 文字나 符號를 쓰지 아니한다.
 二. 表音主義를 取한다.

第六一項 單語는 각각 띄어 쓰되, 토는 웃 말에 붙여 쓴다. 例：

(一) 名詞와 ト
사람은. 밤으로만.
악아. 애꾸눈아.

(二) 用言의 語幹과 語尾
가면식 노래한다. 먹어 보아라.
갖고. 빙고. 했으나.

(三) 副謂와 ト

퍽은. 둘아야. 잘만. 그다지도.

第六二項 补助의 뜻을 가진 用言은 그 owi의 用言에 붙여 쓴다. 例：(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먹어버린다 (食了)

열어보다 (試開)

잡아보다 (誣捕)

보아오다 (看來)

견뎌내다 (能忍)

第六三項 外來語를 표記할 때에는 다음의 條件을 原則으로 한다.

一. 새 文字나 符號를 쓰지 아니한다.
 二. 表音主義를 取한다.

乙

집어 버리다 (捨而棄) 집어버리다

열어 보다 (開而見) 열어보다

第六三項 다음과 같은 獨立으로 쓰이지 아니하는 말들은

그 웃 말에 붙여 쓰는다.例:

그것 하는것 갈데 갈방 할수

할것 있는줄 험터 그의 가능이

그대로 하는대로 훨성실은 훨듯한 먹는것하다

第六四項 命數辭는 그 웃 말에 붙여 쓰기로 한다.例:

집 한채. 봇 두자로. 나무 뒷돌. 참외 한개.

상군 비 사람.

第六五項 數를 우리글로 쓰을 때에는 十進法에 依하여

쓰다.例:

일만 삼천 구백 오십 팔

一. 무릇 어떠한 品詞를勿論하고, 한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가지 以느. 있음을 特別한 境遇에만 認定한다.例:

식말 선심 셀개(三). 널발 널자 널치(四)

二.一定한 語根이나 語幹이 혹은 晉이 脱落되고 혹은

군 소리가 더하여 한 品詞로 익어버릴 때에는 그 語根이나

語幹을 밝히어 쓰지 아니한다.例:

거드랑이(腋) 나비(幅) 매듭(結節) 둘(束)

벼르장이(翟賈) 소명(鼎盞) 다습(獸五歲) 여습(獸六歲)

예날곱(六七) 이례(七日) 여드레(八日) 너부족하다(廣)

무직하다(後重) 커다랗다(甚大)

三.用言이 活用할 것에는, 그 語幹의 끝 晉節의 출소리가 “나”나 “그”일 것에는, 빙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 副詞形語尾는 “아”로, 過去時間辭는 “았”으로 定하고, 그 虚소리가 “나, 터, -, 1, ㅂ, ㅋ, ㄴ, ㄱ”일 것에는 “어”와 “었”으로만 定한다.例:(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1) “아”로 할 것

甲

나아(遞) 나았다

막아(防) 막았다

보아(見) 보았다

乙

나어 나었다

막어 막았다

보어 보았다

들어(回)	들었다	들어	들었다
(2) “어”로 할것			
거어(攬)	거었다	거아	거았다
주어(給)	주었다	주아	주았다
그어(劃)	그었다	그아	그았다
피어(發)	피었다	피아	피았다
개어(晴)	개었다	개아	개았다
비어(吠)	비었다	비아	비았다
되어(爲)	되었다	되아	되었다
쉬어(休)	쉬었다	쉬아	쉬았다
흐어(白)	흐었다	흐아	흐았다

四. 語韓의 韓音節이 韓母音 “ㅅ, ㅈ, ㅊ”의 받침으로
끝났을 적에는, 韓尾의 “ㅡ”소리가 “ㅣ”로 나는 일어 있으-

나, 이것은 모두 “—”로統一한다. 例: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있으나(有)	있어나

갖은(具備)	갖인
죽은(死)	죽인
앉으나(坐)	앉이나
쫓으나(從)	쫓이나

五. 純朝鮮語나 漢字語나를勿論하고, 韓詞의 韩音節이
“이”나 “흐”로混同될 적에 限하여, 그 말이 語源적으로
보아, “하다”가 볼을수가 있는 것은 “하”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것은 “이”로 한다. 例:

(1) “하”로 할것

꾸준하(如- ·)	가지런하(齊)	고요하(靜)	덤덤하(淡泊)
마땅하(當)	부지런하(勤)	듣는하(堅固)	흔하(多)
가하(可)	감하(敢)	능하(能)	분명하(分明)
심하(甚)	장하(壯)	자연하(自然)	쾌하(快)

(2) “이”로 할것

기어이(期必)	헛되이(虛)	가끼이(近)	가벼이(輕)
고이(麗)	반기이(歡)	새로이(新)	즐거이(樂)
꿋꿋이(處處)	나날이(毎日)	번번이(每番)	집집이(家家)
일일이(——)	일일이(事事)	일일이(一一)	일일이(一一)

〔附記一〕 分明하 “이”나 “하”로만 나는것은 나는데로

하나다. 例 :

(1) “이”로만 나는것

벼부죽이(稚廣)	작이(少)	큼지이(稍大)	피듯이(暖)
두렷이(明暎)	지긋이(徐緩)		

(2) “하”로만 나는것

작하(少)	극하(極)	급하(急)	족하(足)
-------	-------	-------	-------

〔附記二〕 分明하 “하”나 “이”의 두가지가 다 있는것은, 上記 規則에 맞는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쪽의 말을 버린다. 例 : (甲을 取하고, 乙을 버린다.)

甲

乙

똑똑하(分明)	똑똑이
답답하(疑惑)	답답이

첨첨히
첨첨이

六. “이요”는 接續形이나 終止形이나 다 “이요”로 하고,

“자요”는 “자요”로 한다. 例：

- (1) 이요…이것은 봇이요, 이것은 먹이요, 또 이것은 소요.
- (2) 자요…같 사람은 가지요.

附錄二 文章 符號

文章에 쓰는 重要的한 符號는 大略 다음과 같이 定한다.

- (1) ○ (•) 文章의 끝난것을 나라별칙에 그 끝에 쓴다.
- (2) • 西洋의 同—人名이나 地名 사이에 쓰기로 한다.
- (3), 停止하는 자리를 나라별칙에 그 끝 다음에 쓴다.
- (4) : 大體로 畫等의 말을並列할 칙에 그 사이에 쓴다.
- (5) ; 한 文章이 끝났으나 다음 文章과 意味上 連續이 있을 境遇에 그 사이에 쓴다.
- (6) 『(“ ”) 引用을 나라별칙에 쓴다.
- (7) 〔(‘ ’) 二重 引用을 나라별칙에 쓴다.
- (8) ! 感歎을 나라별칙에 그 끝 다음에 쓴다.
- (9) ? 疑問을 나라별칙에 그 끝 다음에 쓴다.
- (10) = 單語의 中綴된것을 나라별칙에 쓴다.
- (11) — “곧”(即)의 意味로 쓴다.
- (12) — — 위의 말을 다시 解釋하고 넘어갈 칙에 쓴다.
- (13) 말은 끝내고 뜻을 말 밖에 나라별칙에 쓴다.
- (14) 이 밖에도 (), [], { } 等 符號를 쓴다.

錄

(15) 固有名詞를 表示하고자 할 칙에는, 縱書에서는 縱條에 單線을 긋고, 橫書에서는 下線을 긋는다.

(16) 叠用을 表示할 칙에는 筆記에 限하여 쓰되, 縱書에는 ˘를 쓰고, 橫書에는 ~를 쓴다.

(17) 長音標는 두 點을 글자의 左쪽에 置되, 다만 字典이나 聲音論 같은 데의 聲音 符號로만 쓴다. 例：

城(城)： 城(城)。 鏡城(鏡城)。

但 行文에 처는 長音 符號를 特別히 表示하지 아니함을 原則으로 하고, 다만 外來語나 模倣語等을 特別히 表示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출소리를 거듭 쓴다.

한글 마춤법 통일안

昭和八年十月二十九日
初版再印行
昭和九年五月三十一日
三版四版發行
昭和十一年二月三十日
四版五版發行
昭和十三年五月十七日
五版訂正發行

定價金二十錢
(送料三錢)

(檢印)

著作兼發行人
朝鮮語學會
代表 崔鉉培
京城府花洞町一二九號一

印 刷 人 均



金 京城府堅志町三二
印 刷 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町三二

朝鮮語學會
會 印 行 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號一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